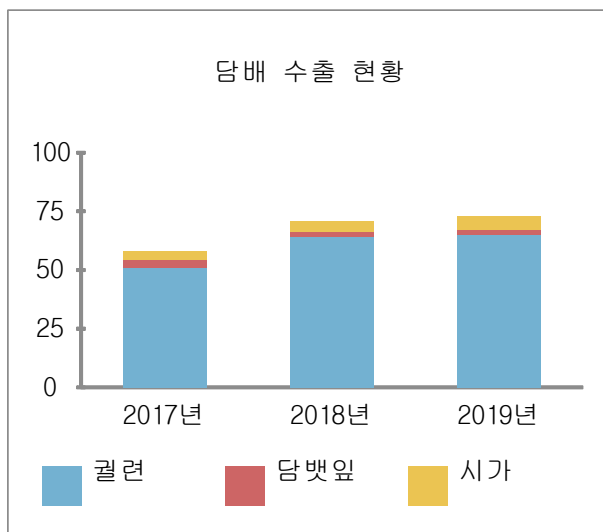


2 019년의 담배 수출액과 수입액이 나란히 역대(歷代)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에 따르면 2019년 담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늘어난 10억1000만 달러(Dollar)로 집계됐다.

※ 담배 수출 현황¹⁾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궐련	51	64	65	
담뱃잎	3	2	2	
시가	4	5	6	
기타	3	3	4	
합계	61	74	77	

(단위: 천 톤)



1.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입액



수출액이 높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궐련(Cigarette) 담배가 96.8%로 가장 높았다. 비중(比重)이 가장 큰 수출(Export)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가 전체의 36.9%를 기록했다. 2위는 일본(Japan)으로 14.1%의 점유율(Market Share)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6년까지 9위였다. 아랍에미리트, 일본의

뒤를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10.3%, 베트남(Vietnam)이 8.8%, 호주(Australia)가 5.1%의 순으로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의 담배 수입액은 4억1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여 20.8%나 늘었다. 담배 수입액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수입(Import)되는 담배제품(Tobacco Product)은 담뱃잎(Leaves of Tobacco)이 71.0%로 대부분이었고 궐련 담배는 6.8%를 차지했다. 수입 점유율에선 브라질(Brazil)이 1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도(India)로 11.6%, 필리핀(Philippines)이 10.1%, 탄자니아(Tanzania)가 8.3%, 인도네시아(Indonesia)가 8.0%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 수출입구조가 담배 원료인 담뱃잎을 수입해 가공 후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크므로 담배 수출이 늘면서 수입도 늘었다”고 밝혔다.

2. 담뱃세 해외 사례

수출입액의 증가로 인해 최근 정부 안에서 10년 동안 제자리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과 ‘세수(稅收)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Case)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Mexico)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7페소(Peso) 인상되자 판매량은 30% 감소하였다.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38% 증가하였다. 터키(Turkey)는 담배가격기준 세금(稅金)을 5% 올리자 소비는 15.5% 줄었고 세수는 2.2배 상승(Increase)하였다. 영국(United Kingdom)은 담배가격을 두 배로 올리자 소비는 50% 감소(Reduction)하였고 세수는 44% 증가하였다.

김해나 연구원(korcham.sanggong.com)

작성일: 2020. 01. 27.

[\[관련자료\]](#)

1) 자료: 관세청